

해외출장 보고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외출장-인구관련 우수정책 및 도시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우수사례벤치마킹
- 출장기간: 2023.05.09.(화) ~ 2023.05.16.(화), 6박 8일
- 출장지역: 독일·오스트리아
- 출장자: 이성우 연구위원

○ 주요일정

날짜 (요일)	장소	방문기관	주요내용	
5.9. (화)	인천 프랑크푸르트		12:50~ 17:40 (현지)	○ 인천국제공항 출발 ○ 독일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5.10. (수)	비스바덴	자체정담회	9:30 ~11:00	○ 기관방문 관련 사전 자체 정담회
		독일연방 통계청	13:30 ~16:30	○ 면담자: Andrea Vermeer - 독일 우수 인구정책 벤치마킹 및 시사점 모색
5.11. (목)	헤센	헤센주 의회	9:30~ 11:30	○ 면담자: Astrid Wallmann (주의회 의장) - 의회 운영 및 주요 법령제정 현황 등 정보교환 및 우수정책 논의
5.12. (금)	뮌헨 잘츠부르크	친환경 신도시 메세슈타트립	9:30~ 11:30	○ 면담자: Mr. Michael Elk -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유입·시설개선·소득 증대 등을 위한 방안 모색
5.13. (토)	비엔나	가소메타시티	13:30~17:00	○ 가소메타시티(현장시찰, 면담) ○ 면담자: Andreas Pöschek - 기존(가스저장)시설을 활용한 사례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사업 등 개선방안 모색
5.14. (일)	비엔나	자체정담회	9:30~12:00	○ 자체 정담회(기관별 논의사항 결과 공유 등)
5.15. (월)	비엔나	비엔나 인구정책연구소	9:30~12:00	○ 면담자: Alexia Fürnkranz-Prskawetz - 오스트리아 인구정책 벤치마킹 및 시사점 모색
5.16. (화)	비엔나 인천		12:30	○ 인천공항 도착

2. 출장 배경 및 목적

- 인구감소에 따라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이탈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지역소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북부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
- 인구감소와 도시소멸의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인구대응 전략 및 도시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 공유
- 중앙정부 인구 정책의 보조 역할을 넘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도형 인구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 방안을 강구

3. 관계자 인터뷰 주요내용

(1) 독일 연방 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는 Wiesbaden에 소재한 연방의 중앙통계기관으로 독일의 인구, 경제, 노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주요 임무로 하며, 특히 면담에 인구통계에 전문가들이 참석
- 독일은 통일 직후 사회적 불안, 경제적 후퇴,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욕구가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동독지역 인구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2000년 이후 점진적 회복하여 현재는 독일인구가 8,4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독일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1.6명으로 대한민국(0.84)명의 2배에 달하는 점에서 인구감소에 대해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한 것으로 평가
 - 자녀 출산에 따른 수당 지급과 다자녀에 대한 누진적 수당 지급으로 재정 지원
 - 2007년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한 8주의 유급휴가, 출산 이후 1년까지 부모 중 1명에게 1년간 유급 육아휴직의 제도화(출산 전 수입의 70%까지 지급)
 - 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약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 사회제도의 안정적 운영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 받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업 대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대신 일자리 제공의 의무를 수행
 - 미혼 출산율이 전체 출산의 1/3을 차지하는 외국인민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통한 인구증가와 같은 전통적 가족 관념에 대한 포괄적 대응
 - 유치원 취학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유아원(Kita)을 국가주도로 신설하여 부모의 일과 육아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 경주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에 대한 편견, 차별,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국가 정책을 통해서

-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적 배려를 지속
- 독일의 인구 감소에 대한 다양한 대책에도 심각한 위기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
 - 독일의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1년 107만 사망에 80만의 출생으로 20만의 순감소가 발생하는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경험
 - 인구감소 요인이 지속해 작용함에도 2015년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유입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0만이 유입되면서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작용
 - 독일 인구 변화에 단기적 효과도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
 -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노령자의 사망으로 인구가 급감
 - 2018년 동성결혼 허용으로 결혼율이 급격한 증가
 - 2022년 2월 22일 같이 숫자 2가 겹치는 행운이라는 독일의 미신이 결혼 증가로 이어지는 단기효과도 작용

독일 연방통계청 세미나



(2) 바이에른 주의회(Bayerischer Landtag)

- 뮌헨에 소재한 주택·건설·교통위원회의 소속 주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교환
 - 면담장에는 Hans Friedl 자유유권자연합(FW), Franz Bergmuller 독일대안당(AfD), Christian Zwanziger 녹색당(GRU), Natascha Kohnen 사회민주당(SPD) 의원이 참석하여 인구와 주택문제를 주로 논의
 - 제1당인 기사당(CSU)과 제3당인 자유 유권자당 연정으로 전체 205석 중에서 101석을 차지하여 집권당을 구성하고 있으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요정책 통과에서는 사안별 조율이 필요한 상황
 - 녹색당(서독)과 동맹90(동독)이 2당, 독일대안당(AfD) 3당, 사회민주당 5당 순으로 의석을 점유하고 연정에 따라 주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소개
 - 바이에른주는 인구 1,300만으로 경기도와 유사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면적은 남한의 3/4에 해당하여 인구 밀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 독일의 합계출산율 1.6명의 비결로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개방적 이민정책을 지적
 - 유치원 이전의 유아원 설립으로 부모의 사회적 활동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남성의 양육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바이에른주 헌법에 따르면 모든 주민이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주 개념을 중심으로 한 주택의 개념과 정부가 주민의 거주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명시
- Natascha Kohnen 사회민주당(SPD) 의원의 경우 다른 보수진영의 의원과 달리 인구 정책에 있어서 주택정책과 연계하여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 무엇보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 주 정부 차원에서 가구의 세후 소득의 1/3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 강제성 없는 권고조항이긴 하지만 월세를 자의적으로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장치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60%를 차지하는 정책은 정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주거지 건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 바이에른주에서도 다주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부패자금 그리고 유럽의 범죄 등에서 발생한 지하경제 자금의 돈세탁을 위해서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독일의 부동산에 투기자금으로 계속 유입되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작용

바이에른 주의회 방문 및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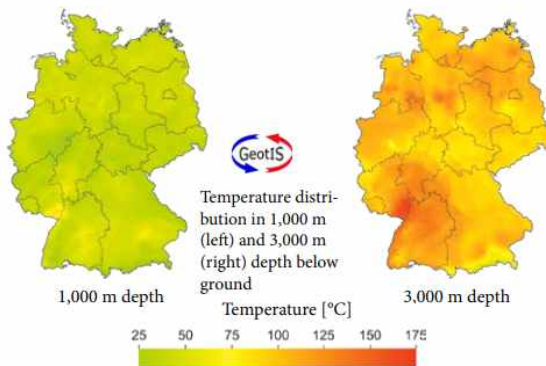


(3) 메세슈타츠 리엠(Messestadt Riem)

- 뮌헨 공항 부지를 재개발하여 지열발전을 통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공원·녹지 공간이

- 공존하는 도시재개발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의 정책 연계의 모범사례
- 지하 2,000~3,000m에 냉수를 주입하여 지열로 데워진 온수를 지상의 열전환 시설로 끌어올려 도시 난방에 활용하는 형식의 친환경 에너지 시설 운영
 -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풍력과 태양력 위주로 편성된 기존의 접근과 달리 지열발전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소개

독일의 지열 온도 분포



뮌헨 지역에 집중된 지열발전 시설



지열발전소



도시 재생시설



- 간담회를 주재한 Dr.-Ing. J. Hartl은 메세슈타츠 리엠의 친환경, 친서민, 친 비즈니스 복합거주 환경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
- 컨벤션 도시를 의미하는 메세슈타츠 리엠은 뮌헨 공항의 관제탑과 주요 건물을 재활용하고 공항 청사에 전시관을 설치하여 경기도의 킨텍스와 같은 대규모 전시 공간을 운영하여 MICE 산업을 주도
 - 전시와 함께 주거, 학교, 에너지 시설이 통합된 친환경 도시관리 가능한 도시재생 사례로 경기도의 캠프 그리브스와 같은 반환 공유지와 군부대 유허부지의 활용에 정

책적 접목의 모범사례로 평가

- 단일의 도시지역 내의 생활에 필요한 쇼핑, 교육, 근무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 재생계획을 통해 교통난 해소, 생태공간 확보, 사회 불평등 해소와 같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안의 제시

(4) 가소메타시티(Gasometer City)

- 1870년 오스트리아 정부가 비엔나에 4개의 원형 돔으로 건설한 액화 석탄가스의 저장 시설인데 100여 년간 사용하다가 1986년 천연가스를 공급하면서 가동 중지를 결정했지만, 해당 시설을 역사적인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 재생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존하기로 결정
- 비엔나 시 당국은 이 4개 동의 건물을 4명의 건축가 Jean Nouvel (Gasometer A), Coop Himmelblau (Gasometer B), Manfred Wehdorn (Gasometer C) and Wilhelm Holzbauer (Gasometer D)에게 각각의 프로젝트를 맡겨 10여 년에 걸쳐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극장, 쇼핑센터, 기숙사, 아파트로 전환
- 가소메타시티는 과거 산업의 폐건물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보존과 개발의 가치를 양립시킨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었고 거주민 월세 보조, 상가 입점 업체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정책적 성공으로도 유명

가소메타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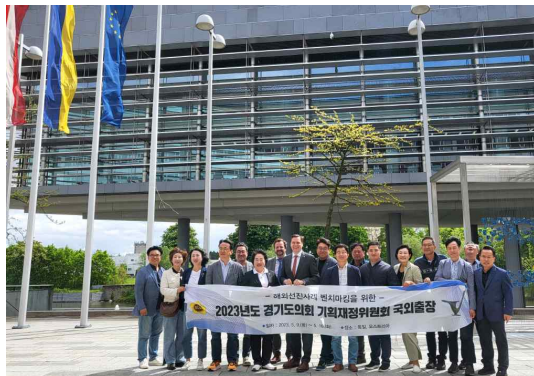
(5) 니더에스트리히 주의회(Niedersterreich Landtages)

-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외곽을 감싸고 있고 냉전 시절 공산주의 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와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니더에스트리히 주는 서울의 외곽을 구성하는

경기도와 역사·지리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특성

- 니더에스트리히 주는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법적·제도적으로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수도 비엔나의 외곽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기여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교육, 교통, 문화, 학술, 첨단기술을 강조
- 니더에스트리히 주가 연방정부와 협력하에 추진하는 ECO Plus 프로젝트는 산·학·연 연대의 기술협력을 통해서 첨단산업을 추진하는 4개 지역을 지정하여 연구와 혁신을 통해 청년인구의 유입을 추진
- ECO Plus 책임자인 Claus Zeppelzauer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4개의 지역에 분포하는 테크노 폴 프로그램으로 ①Krems-건강, ②Tulln-유기농 기초기술, ③ Wr. Neustadt-의료 및 의료 기계, ④Wieselburg-유기농과 농업에 특화된 기술개발을 소개
 - ECO Plus 프로젝트는 2023년 현재 4개 분야 23개 연구소와 13개 대학이 참여하고 3,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31개의 연구를 수행하고 6억 유로를 투자
 - 연구 결과로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은 880만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연구결과에 따라서 주 정부의 구조가 변경될 수준으로 지역의 산업인프라 구축을 주도
 - Tulln의 경우 2004년부터 100여 명의 유기농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3개 대학과 관련된 1,000명 이상의 연구자의 참여를 통해 유기농 분야의 최고 기관으로 발전하였고 등댓불 프로젝트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심장부의 역할을 수행

니더에스트리히 주의회 방문



(6) 비엔나 인구학 연구소(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Austrian Academy of Science)

- 비엔나 인구학 연구소는 연방정부 소속인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 소속된 연구기관으로 인구와 관련한 인구통계, 건강·장수, 출산·가족, 교육환경, 인구 예측, 인적자본의 7개 전문 분야의 연구를 수행

- 세미나를 주최한 Dr. Isabella Buber-Ennser의 설명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인구정책은 독일과 유사하게 양육에 대한 부모의 양성평등의 접근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
- 오스트리아도 육아휴직을 시작하던 2000년 초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의 위험이 존재했고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성 육아휴직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여건을 개선
- 2022년에 발간된 인구 관련 연구의 핵심 주제는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을 연구
 - 출산율에 있어서 EU 회원국 전체적으로 팬데믹 초기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2021년 초부터 지속해 증가
 - EU 회원국의 기대수명에 있어서 소득이 높은 국가의 기대수명은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증가
 - 2019년과 2021년을 팬데믹 발생 전후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불가리아의 경우 남성은 3.4년 여성은 3.6년의 기대수명이 축소되어 과거 수십 년간 누적적으로 증가된 평균수명이 감소하는 효과
 - 러시아 여성의 경우는 3.7년 이상 기대수명이 감소하였고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가 17년 이상 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짐

비엔나 인구학연구소 방문 세미나

